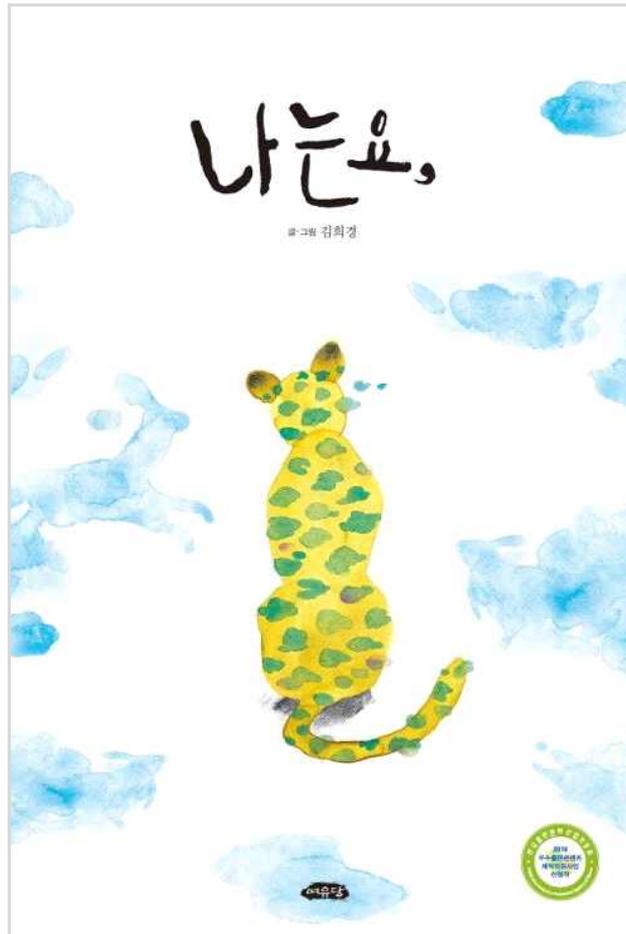


나는요,

김희경 글·그림



주제	내 안의 여러 가지 모습 탐색하고 표현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나를 수용하기, 있는 그대로의 나, 나를 사랑하기, 나다움, 수용, 인정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미술 [6미01-01]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작성	창원 풍호초등학교 박경미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을 떠올려 보고 표현하며, 나를 수용하고 사랑하도록 이끄는 사랑스러운 그림책이다. 동물들의 행동 특성에서 자신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고 수용하게 된 작가의 경험에서 탄생한 그림책으로, 동물에 빗대 자신을 표현해 보며 자신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나뿐 아니라 누구나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 하나하나가 모여 자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충만해짐을 솔직 다정한 글과 맑고 따스한 그림으로 이야기한다.

■ 학습 목표

- 그림책이라는 매체의 특징을 알고, 글과 그림을 함께 읽을 수 있다.
- 그림책을 읽고 작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그림책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특징을 탐색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나에 대한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 수업 준비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그만큼 내 안에는 여러 모습이 있다. 이 책은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을 여러 가지 색과 크기의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또한 여러 동물의 다양한 행동 특성에 빗대어 표현한다. ‘나는 누구일까?’라는 심오한 물음에 김희경 작가는 간결한 글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수업은 나를 이해하고 나의 다양한 면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읽은 후 활동에서는 주로 미술 활동으로 자신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에 맞게 몸으로 표현하기, 그림책 읽어주기, 찢어서 표현하기,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였다. 5~6학년을 염두에 두고 교안을 작성하였지만 학습 과정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다양한 학년에서 활용해 보길 바란다.

수업 준비물 A4용지, 색종이나 색한지, 풀, 스크랩북(5P 또는 10P), 색칠도구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표지 살펴보기	1차시
읽는 중	내용 파악하기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1차시
읽은 후	색 동그라미로 표현하기	1차시
	나에 대한 그림책 만들기	3차시

읽기 전

1. 마음 열기

- 진진가 놀이하기

※Tip. 진진가 놀이는 '진짜진짜가짜'라는 뜻이다. 보통 나에 대한 3가지 문장을 쓰는데, 2가지는 진짜, 1가는 거짓으로 쓴다. 친구들은 거짓으로 말한 문장을 맞히는 놀이이다.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해 알아갈 때 많이 하는 놀이이다. 문장의 개수는 학년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면 된다.

<놀이 방법>

-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준다.
- 각자 자신에 대한 진진가 문제를 만들어서 종이에 쓴다.
- 짝끼리, 모둠끼리, 반 전체 등 놀이 대상을 정한다.
- 출제자가 문제를 내고 나머지 친구들이 알아맞힌다.
- 맞힌 사람에게 진진가 문제지를 준다.
- 맨 끝에 문제지 개수를 세어 누가 가장 많이 맞혔는지 알아본다.
- 활동 소감을 들어 본다.

1. 나는 형제가 없이 외동이다.
2. 나는 노란색을 가장 좋아한다.
3.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이다.
4.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피자이다.
5. 나는 달리기를 잘한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진진가 문항 만들기

1. 나는 겁이 많다.
2. 나는 내 방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3.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4. 나는 선택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
5. 나는 화를 잘 못 내고 잘 참는 편이다.

그림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진진가 문항 만들기

- 몸으로 표현해요.

<놀이 방법>

- 교사는 미리 쪽지에 여러 가지 동물의 이름을 적어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예) 사슴, 나무늘보, 날치, 문어, 토끼, 코뿔소, 곰, 펭귄, 귀뚜라미, 원숭이, 강아지 등
- 아이들은 동글게 원을 만들어서 선다.
- 주머니를 돌리면 아이들은 쪽지를 하나씩 뽑는다.
- 교사가 음악을 틀어 주면 아이들은 쪽지에 적혀 있는 동물의 흉내를 낸다.
- 말을 하지 않고 몸짓만 보고 같은 동물을 표현한 친구들끼리 모인다.
- 여러 개의 작은 원으로 모이면 쪽지를 확인한다.
- 같은 방식으로 2~3번 놀이를 반복한다.

※Tip. 쪽지를 뽑은 친구가 동물을 몸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동물인지 알아맞히는 놀이로 변형할 수도 있다. 또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이 동물로 살아간다면, 나는 어떤 동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주제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2. 표지 살펴보기

- 표지 그림 살펴보기

- 표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몸에 얼룩무늬가 있는 동물의 뒷모습이 보여요. 고양이나 호랑이, 치타나 표범처럼 보여요.
주변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 모양이 사슴, 토끼를 닮았어요.
뒤표지에는 나뭇가지에 작은 새가 앉아 있어요.

※Tip. 앞표지와 뒤표지의 그림이 연결되는 경우, 책을 펼쳐 앞뒤 표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 내용 예상하기

-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예) 여러 동물들이 나와서 자신을 설명할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그림책일 것 같아요.

■ 질문하기

-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봅시다.

예) 왜 앞표지에 그려진 동물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 줄까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걸까요?

보통 제목에는 문장 부호가 잘 안 나오는데, '나는요' 다음에 왜 쉼표가 찍혔을까요?

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어지는 느낌을 주려고 쉼표를 찍은 걸까요?

읽는 중

1. 내용 파악하기

■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처음 도전하는 순간, 나는 항상 온몸이 떨려요.”에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예) 긴장감이 느껴져요. 기분 좋은 설렘이요.

- “나는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에서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왜 많은 토끼가 그려져 있을까요?

예) 혼란스러움, 당황스러움, 난감함, 조급함이 느껴져요.

토끼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여러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많은 토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마리는 가만히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을 바라보는 토끼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묻는 것 같아요.

- “나는 가끔 내가 있을 곳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에서는 왜 북극곰을 그려 놓았을까요?

북극곰은 언제 보이나요?

예) 빙하가 줄어들어서 북극곰이 점차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좁은 빙하에 올라서 있는 북극곰이 위태로워 보여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북극곰이 고개가 아래로 향해서 시무룩해 보여요.

- “나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실바람 하나에 수다쟁이가 되기도 해요.”는 무슨 뜻일까요?

예) 불어오는 실바람 하나도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연을 좋아해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감각이 예민해서 실바람 하나가 불어와도 금방 알아차린다는 뜻 같아요.

2.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 나누기

■ 내 마음에 와 닿은 문장이나 장면 찾기

-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나는 나만의 공간이 좋아요.’라는 문장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요즘 집에서 거실보다는 내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내 방에 들어가면 내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편안해요.

‘처음 도전하는 순간, 나는 항상 온몸이 떨려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제가 최근에 합창하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스스로 해냈을 때 나는 기뻐서 너울너울 춤을 춰요.’가 인상에 남았어요. 저도 그날 해야 할 분량의 공부를 마치면 성취감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요. 하기 싫을 때도 가끔 있긴 하지만요.

3. 그림의 표현방법 알아보기



세상에는 수많은 나가 있어요.
나는요, 나는 누구일까요?

모두 나예요.

■ 그림에 사용된 표현방법 탐색하기

-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예) 동그라미요.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크기도 다양해요.

- 색 동그라미는 무엇을 뜻하나요?

예) 나의 여러 가지 면,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읽은 후

1. 나를 색 동그라미로 표현하기

■ 색한지를 찢어서 나를 표현하기

- 여러분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이 있나요? 책 속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찾아봐도 되고, 책 속에 나오지 않은 면을 찾아봐도 됩니다.

예) 나도 책에 나오는 사슴처럼 겁이 많아요. 나는 화를 잘 내요. 나도 자주 엉뚱한 생각을 해요.

- 그 모습에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면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면은 동그라미를 크게 찢어 보세요.

예) 겁이 많은 건 노랑이 어울려요. 화를 떠올리니 빨간색이 떠올라요.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파랑으로 표현할래요.



나는 우유부단한 면은 하얀 동그라미로,
생각이 많은 부분은 파란 동그라미로,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빨강으로,
나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것은 노랑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두려움은 검정으로
표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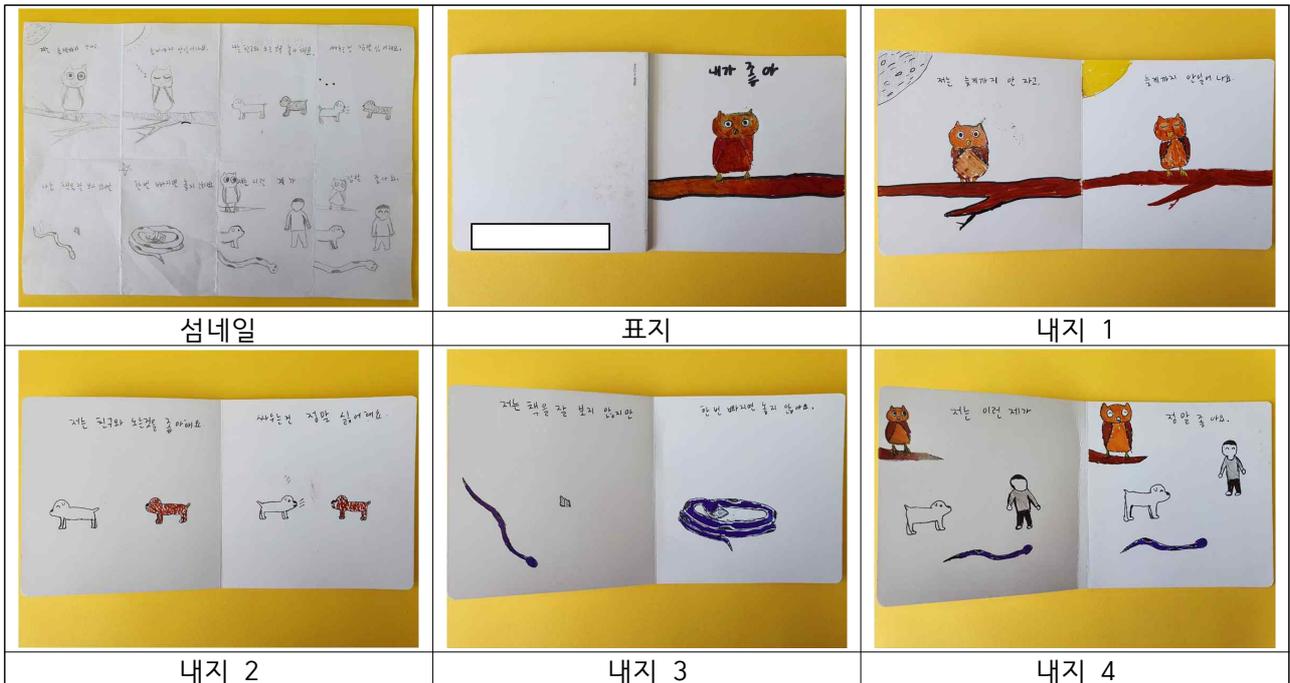


겁이 많은 나의 모습은 초록색 동그라미로,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은
분홍색 동그라미로,
스스로 해내는 것을 좋아하는 면은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현했어요.

2. 나에게 대한 그림책 만들기

【만드는 방법】

- ① 섬네일을 만듭니다.
5장짜리 스크랩북은 표지를 제외하면 펼침면이 4개, 쪽으로는 8쪽이 나옵니다.
섬네일은 보통 채색하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간략하게 그립니다.
선생님은 섬네일을 만드는 단계에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섬네일 단계에서는 글이나 그림을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스크랩북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② 더미북을 만듭니다.
더미북은 실제 만들 책보다 작은 크기로 만들고, 그림도 간략하게 그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미북 만들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글과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여 완성합니다.
- ④ 완성한 스크랩북은 친구들과 함께 돌려봅니다.



3. 활동 소감 나누기

■ 『나는요.』를 읽은 소감 이야기 나누기

-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처음에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면을 색 동그라미로 간단하게 나타낸 점이 놀라웠어요. 동생에게 읽어주고 싶어요.

글과 그림이 잘 어울렸어요. 고학년이 되고 나서는 그림책을 잘 보지 않았는데 그림책이 재미있어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빌려 볼 거예요.

■ 『나는요.』를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소감 이야기 나누기

-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소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저는 동물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재미있었어요. 같은 동물인 줄 알았는데, 다른 동물이었을 때 웃겼어요.

저는 색한지로 찢어서 표현하는 게 좋았어요. 그림은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찢어서 표현하는 것은 쉽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색한지가 질겨서 동그라미가 잘 안 만들어졌어요.

저는 책만들이가 재미있었어요. 섬네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섬네일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금방 되었어요. 친구들과 책을 함께 돌려보는 것도 좋았어요.